

여수 금오도 2차 비렁길 열렸다

직포~학동~심포~장지구간 총 10km 개설 본격 관광객 맞이

최근 전국적으로 걷기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여수 금오도 비렁길'(비렁길의 사투리)이 섬 관광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생태탐방로인 '금오도 비렁길'을 찾은 관광객과 도보여행객은 30여만명에 달한다.

시는 기존 개설된 함구미~두포(초포)~직포 구간 1.2코스(8.5km)에 이어 최근 총 10km 길이의 3·4·5코스 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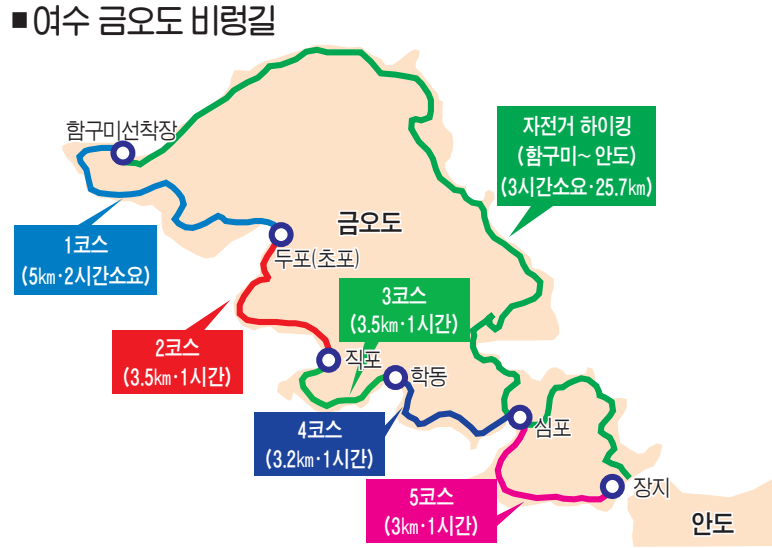
이번에 선보인 구간은 ▲3코스 동백나무 터널과 벼랑을 에워싸고 도는 직포~학동구간(3.5km·1시간) ▲4

코스 돌길 옆으로 늘어진 부처손이 이색적인 학동~심포구간(3.2km·1시간) ▲5코스 깎아지른 절벽에 뿌러진 시루떡 모양의 납작한 돌들이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것 같은 심포~장지구간(3.3km·1시간) 등 3개 코스가 있다.

여수시 강승원 관광과장은 "비렁길 코스를 걷다 보면 고즈넉한 어촌 마을의 풍경과 바다, 동백 등이 한데 어우러지는 진경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 금오도는 여수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1시간 40분, 울산 신기항에서 25분이 소요된다.

/동부취재본부=김정희기자 chkim@



순천만 갈대여기 순천만 인근 주민들이 울타리와 지붕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갈대를 엮고 있다. 순천시는 순천만에서 자라는 갈대를 베어 지역주민들의 틈새 소득증대와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남해안에 600t 경비정 여수해경 517함 투입

100개 물체 동시 추적 고성능 레이더 장착

남해안 해상에 최선에 해경 경비함이 투입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29일 여수시 국동항에서 최선에 중형 경비함 517함(640t·함정명 태극 17호·사진) 취역식을 갖는다.

517함은 여수해경이 보유한 20여 척의 각종 경비함정 가운데 제일 큰 규모의 중형 경비함으로, 221여여명의 건조비가 소요됐다.

517함은 길이 62.2m·너비 9.1m에 5700마력 엔진 2기와 3600마력 엔진 2기를 각각 장착해 최고 37.4노트(시속 70km)의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다. 수심 3m 정도의 얇은 바다까지 운항이 가능하도록 '워터젯'(water-jet) 형태의 물 분사 방식 추진기를 장착했다.

경비함은 1회 9만8000ℓ의 연료를 적재한 상태에서 중간급유 없이 최대 3700km까지 항해가 가능하며, 최첨단 위성항법 장치(DGPS플로터)와 100개의 물체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 2대를 갖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새로 배치된 517함은 전남 동부 해상을 누비며 해양주권 수호와 각종 해양사고 구조의 임무를 맡아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부영, 여수 죽림지구에 임대주택 866세대 건립

여수 죽림지구에 866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이 지어진다. 여수시는 "㈜부영주택의 여수시 소라면 1111번지 '부영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최근 승인됐다"고 밝혔다.

부영주택은 4월말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지상 15층, 전용면적 59.9㎡ 규모로 866세대의 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영주택에서 소라면 죽림리 1130번지(죽림지구 B 1블록)에 1340세대의 임대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추가 신청해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다"며 "이로 인해 여수시의 임대 주택량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사업주 능력개발비 찾아가세요"

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2천여 사업장 환급금 23억 '낮장'

"산업인력공단에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원 또는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훈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능력개발지원금'은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 지원 대상기업은 240%) 범위까지 교육훈련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훈련비용 외에 교육훈련 기간중의 숙식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들이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실제 환급신청은 저조한 실정이다.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지사장 문기표)에 따르면 전남 동부(광양·여수·순천·보성·고흥) 지역내 2000여개 사업장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신청하지 않은 교육훈련 환급금액은 23억여원에 달한다.

해당 사업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jeonnam.hrdkorea.or.kr)에서 양식서류를 다운받아 수료증 사본·통장사본·영수증을 첨부해 산업인력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1899-4001)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부자지간 운명적 만남 연극 무대에 올려진다

순천시립극단 29~30일

아버지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연극이 순천에서 공연된다.

순천시립극단은 제42회 정기공연으로 '아버지의 낡은 노트'를 29~30일 이틀간 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올린다.

이번 작품은 가난 때문에 버려진 아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자지간의 사랑을 다루며, 헤어지지 20여년만에 운명적으로 재회하는 스토리로 되어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애기를 통해 아버지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료는 성인 1만원·학생 3000원으로 티켓링크에서 예매하면 된다. 문의(061-749-3516)

/동부취재본부=예정영기자 jyj@

전 북



문화예술 공간 변신 전주 골목길

시, 완산구 고사동 등 7곳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전주시 골목길 디자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주시는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전주부성내 골목길디자인 프로젝트'를 최근 착공했다.

골목길디자인 프로젝트는 완산구 고사동 일원 특화거리인 영화의 거리와 청소년거리, 견교소는 거리내 골목길 7개 구간 900m에 대해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행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골목길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 하는 사업이다.

시는 전주부성의 풍부한 전통역사, 문화가치와 의미를 확대하고 공공디자인의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주부성내 문화생태지도'를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배부했다.

또한 시는 '훑쳐보고 싶은, 걷고 싶은, 사진찍고 싶은 골목'이라는 디자인 기본 컨셉을 가지고 구도심 상점들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스타일 창조(1~4구간)와 영화의 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 창조(5~7구간)라는 디자인 세부전략을 마련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시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농업 부문 첫 CDM 국가승인 획득

<청정 개발제도>

하루 100t 오·폐수 처리 전력·퇴비 등 생산

정읍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농업 부문 최초로 CDM(청정 개발제도·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국가승인을 얻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읍시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농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CDM 국가승인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가후변화에 대비해 소, 돼지 등 배설물로 바이오가스, 퇴비·액비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바이오가스는 연소시켜 전력을 만들어 한국전력에 팔고, 퇴비·액비는 지속 가능한 농업에 활용한다.

정읍시와 지자체는 2010년 정읍을 비롯해순천, 제주 서귀포 등 3곳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21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CDM 국가승인을 확보한 정읍은 6월부터 하루 100t의 가축분뇨와 오·폐수를 처리해 전력과 퇴비·액비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올 하반기에 유엔 CDM 사업으로 등록되면 2014년부터 10년간 약 2만4800t의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아 탄소배출권 판매 시 총 3억 9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한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림업업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지를 2020년까지 전국 100곳으로 늘려 365만t의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465만5000t을 줄이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자전거 타고 건강 챙기시다 정읍시와 정읍시 자전거연합회는 26일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시청~정주 고가교~조선교~동초교 6km 구간에서 페어리드를 펼쳐며 자전거 이용 동참을 유도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단신

전주시, 한달간 우리밀 제품 촉진운동

전주시는 우리밀의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무원 및 각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우리밀 제품 애용운동을 펼친다.

우리밀 제품 소비촉진 운동기간(3월 26~4월 25일)에 제품을 구입할 경우 우리밀 라면은 박스당(20개) 4000원, 우리밀 세트는 3000원 할인된 2만4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 시는 우리밀 소비자들의 소비촉진 홍보로 ▲대량소비처 발굴 우리밀 사용권유 ▲각종 축제 행사시 우리밀 제품 판매코너 설치운영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개최

군산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강승구 부시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향후 사회적 기업 발굴과 육성, 지원의 발전 방향과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7명의 예비사회적기업 대표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강승구 부시장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단기적 지원에 끝나지 않고 자립경영 체제를 갖춰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시,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최우수'

김제시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상임대표 김지원)에서 주관한 민선5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김제시는 '시민정책참여제'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시책설명회 등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방법의 채널을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는 노력이 돋보여 주민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행정만족도 제고에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순창 산림박물관 가족 야생화 심기 체험행사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순창군 북흥면 산림박물관에서 27일부터 4월15일까지 야생화 심기 가족단위 체험행사를 한다. 체험행사는 야생화를 심고 나무 청년기와 미니 현미경을 이용해 자연을 느끼고 배우는 오감만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야생화 심기는 1회 참가인원을 25명으로 한정해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참가신청은 산림박물관 홈페이지(www.jbim.or.kr) 또는 전화(063-652-6792~4)로 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봄철 보행자 사고예방 김제경찰, 교통캠페인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26일 터미널 교차로와 김제여중 앞에서 봄철 보행자 사고예방 및 신학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교통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경찰을 비롯해 김제시청, 김제교육지원청, 모범 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 등 100여명이 참여해 무단횡단의 위험성·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 준수와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김제경찰은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확보해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25개소 2000여명을 대상으로 '보행 주·정차 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상주 서장은 "교통사망 사고와 학교 폭력 제로화를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